

청년 구직·직장생활 적응 돕는다

광주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청년일자리 거점공간 운영 등 광주대·전남대·광주경총과 협약...구직청년 6550명 취·창업 지원

광주시가 구직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돕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6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의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 적응지원' 등 2개 사업이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청년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점공간 2개소를 통해 실업 초기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경력 재설계, 취업 전 준비(위빙업), 취·창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직장 적응지원 사업은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친화조직문화 조성고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 프로그램은 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

해 및 커뮤니케이션, 갑질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이다. 또 직장 적응지원의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기본 오피스교육,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확보한 국비 26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36억4000만원을 투입, 총 6550명의 청년에게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업을 연결하고, 광주에 많은 청년들이 남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11월까지 농업인 500명 대상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광주지역 (예비)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사진>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회차별 50명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고하거나 농기계팀(062-613-5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학’ 관련 사료 찾습니다”

광주시, 3월 5~8일 증기·구입 지역문학사 연구·전시 활동

광주시는 '광주문학관' 소장품과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광주문학 관련 사료를 공개 수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1980년대 이전 발간된 광주문학과 관련한 지역 문학사의 증거가 될 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시집·소설집·수필집 등 단행본, 근현대문학 관련 정기간행물, 지역문학작가 관련 비도서자료, 근대 서점·출판 관련 자료 등이다. 광주시는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구입하거나 기증받고, 최종 수집 자료는 문학관 소장품으로 등록 후 지역문학사 연구와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은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자우편(mail.jhk@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문학 관련 자료도 상시 기증받는다. 기증자에게는 누리집에 기증내역을 공개하고 명패 부착, 문학관행사 초청, 발행자료 우송 등 예우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광주문학관 운영팀(062-613-6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문학사의 증거가 될 귀중한 문학자료 수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자료 수집을 통해 광주문학관이 지역 문학 저장고의 초석이자 문학 발전의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청년 50명 위촉 청년위원회 본격 활동

경제·교육·문화 등 정책 발굴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거주 19~39세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제9기 청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한 청년위원회는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홍보 4개 분과별 주제에 맞는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위원회는 또 앞으로 대구시와 청년 달빛교류를 비롯한 타지역 청년단체와 활발한 정책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해 광주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제안하는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최초 전동차 직류피뢰기 국산화 성공

광주교통공사, 2억원 유지보수 비용 절감 기대



광주교통공사 직원들이 도시철도 차량용 직류피뢰기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광주교통공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철도 차량용 직류피뢰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직류피뢰기는 낙뢰로부터 승객과 전동차 주요 부품을 보호하는 중요 장치로, 지금까지 일본 등 해외 제품에 의존해왔다. 이번 개발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국산화 개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광주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직류피뢰기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공기관 안전성 검증에서 성능이

확실했다. 가격도 해외 제품의 60%에 불과해 전체 전동차에 적용할 경우 2억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교통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 경험으로 축적된 피뢰기 성능 데이터와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은 안전 인증 등 제품과 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며 협업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기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

3월 8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홍보 등 판로 확대 기회 제공

광주시는 "2024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TV홈쇼핑(홈쇼핑) 입점을 지원한다. 광주시내 분사 또는 공장이 있는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5개 기업은 홈쇼핑에서 1회 50분 동안 방송 제작비용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홈쇼핑 방송기획자(MD)가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방송일정 등은 별도 협의한다. 선정업체 중 선별해 국내 주요 소비재 전시회 참여,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지원, 홈쇼핑 우수상품전시관 제품홍보, 일사관리 아카데미 교육 등 판로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희망기업은 광주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 8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흥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중소기업의 홈쇼핑 입점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하는 기회"라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